

보성군, 제9회 벌교갯벌 레저벨배대회 개최

보성군은 7일 장양어촌체험마을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보성벌교갯벌을 달리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축제 및 제9회 벌교갯벌 레저벨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청소년 댄스 경연팀 공연과 한국 타악의 좋은 친구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부 전통 뱃배 경기 △10종 레저벨배 경기 △어업유산 전시·홍보관 △한국의 갯벌 VR 체험 △갯벌 생물 잡기 및 무료 시식, △어린이 무료 볼 풀장 △페이스페인팅 등 29개 행사를 추진한다.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관광객들은 보성군청 홈페이지나 네이버 앱을 통해 사전접수를 하거나 행사 당일 10시까지 현장 접수하면 된다. 대회별 프로그램마다 푸집한 상품과 시상금도 준비돼 있다.

'제9회 레저벨배대회'는 벌교갯벌 레저 벨배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

하고 보성군이 후원하며,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 '보성 뱃배어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보성의 대표 특산물인 벌교꼬막을 캐기 위한 이동수단인 '벨배'를 타고 속도를 겨루는 이색적인 경기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또한, 부대행사로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가 열리며, 갯벌 풋살 대회, 보성벌교갯벌에 서식하는 짙둥어와 칠게를 맛보는 무료 시식 부스 등을 운영한다.

한편, 9월 6일에는 '보성 뱃배어업의 중요성과 보전 가치'를 주제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최근 동향(Aurelie 박사), 여자만 해역 보성벌교 갯벌의 가치(김준 교수), 뱃배를 이용한 보성지역 갯벌어업의 세계적 중요성과 가치(Yagi 교수, 황길식 박사) 등을 논의하는 '뱃배어업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종수 기자



보성군은 7일 장양어촌체험마을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보성벌교갯벌을 달리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축제 및 제9회 벌교갯벌 레저벨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성군 제공

장흥-직능·사회단체 간담회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6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1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직능·사회단체와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재향군인회, (사)전국이·통장연합회 장흥군지회, 자율방범대 연합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조사료경영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각 단체별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한 이번 자리는 안보교육 지원, 지방소멸대응 공공인대주택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 확보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출산장려 및 주거정책 지원, 낚시산업 등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하계조사료 재배 확충 등 분야별 군정발전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군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이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평소 군정 참여의 기회가 적은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백두연 기자

고흥군 농수산물 "몽골서 한류 이끌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4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시 내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코리아 위크(KOREA WEEK) 2024 행사에 참여해 고흥 농수산물 홍보 및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코리아 위크(KOREA WEEK) 2024는 몽골 대사관 주재로, 케이팝(K-POP) 공연, 태권도, 전통무용, 케이푸드(K-FOOD) 부스 등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매년 한국문화를 몽골에 알리는 주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는 (주)미니델그루와 함께 고흥 유자차를 비롯해 고흥 쌀, 김, 곡물당, 유자에이드, 유자잼 등 시식 및 시음을 통해 현지 몽골인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현지 인기 덕분에 행사 동안 고흥군 농수산물 홍보부스에 1,000여 명이 방문했고, 5,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현지 언론사 세 곳에서 취재하기도 했다.

특히, (주)미니델그루와 쌀 수출을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앞으로 고흥쌀의 몽골 진출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군에서는 수출 포장재 개발 등 몽골 현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사석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주)미니델그루와의 고흥 농수산물 100만 달러 수출 협약 후속 조치로, 몽골 현지에서 고흥 농수산물 공동마케팅을 통해 몽골 현지인에게 고흥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어 "몽골에서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에 힘입어 고흥 농수산물이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고흥 농수산물 몽골 판촉 행사에서 몽골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말하고, 한국 제품을 평가하는 모습에서 몽골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종수 기자

해남군,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실시

해남군은 매년 9월 첫째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자기혈관 숫자 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

우선 해남교육지원청, 해남소방서 등 10개소를 방문해 바쁜 직장인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선형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환자인지 모르는 20~30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20

대부터 꾸준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관내 31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는 2일부터 6일까지 혈압·혈당 검사 및 상담을 진행해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주간 맞아 '자기혈관, 숫자알기!' 걷기 챌린지가 2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된다. 위크온 앱을 통해 28일 기

간 중 24일 동안 매일 8천보 걷기를 달성하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심뇌혈관질환(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은 우리나라 4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질환으로 평소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예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보현 기자

완도군, 사회조사 실시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11일까지 관내 표본 가구로 선정된 828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전라남도·완도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인식의 흐름을 조사해 삶의 질적 수준과 사회 상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 69개 조사구, 828가구의 만15세 이상(2009. 8. 30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다.

조사 항목은 총 45개 문항으로 전라남도 공통 항목인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여가 활동 등 30개 문항과 완도군 특성 항목인 해양치유산업,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 15개 문항이다.

사회조사 결과는 12월 말 완도군 누리집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이민수 기자

진도군,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

진도군은 지난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박람회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귀농·귀촌 관련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해 농업의 최신 트렌드와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진도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이사비 지원 등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고,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 전시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홍보했다.

또한, 9월 28~29일 양일간, 서울 청계광장에서 처음 열리는 '진도의 날 행사' 홍보로 도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특히, 귀농·귀촌 성공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개인 상담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증정해 방문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장은 "귀농·귀촌의 최적지인 진도를 알리고 도시민을 유치해 진도군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평 기자

